

미·중, 주요 안보정책 문서에 한반도 비핵화 삭제

美, 비핵화 입장 견지하면서 안보 전략서 생략
中, 군축백서 등서 언급 줄여… ‘북한 핵 용인’

미국과 중국이 최근 각자 발표한 주요 안보 문서에서 이전과 달리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북한이 다시 비핵화 협상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데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생략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양국의 의지나 태도 변화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5일(현지시간)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그리고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발표한 NSS와 달리 한반도 비핵화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NSS는 행정부의 주요 안보 목표와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전략의

큰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이번 NSS에서는 북한 자체가 언급되지 않았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 이란과 함께 주요 안보 위협으로 놓 거론돼왔다는 점에서 이런 차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바이든 정부의 2022년 NSS는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기는 기시적인 진전을 만들기 위해 북한과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하는 동시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위협에 맞서 확장 억제도 강화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우선순위가 낮아진 게 아니라는 관측부터, 향후 북한과 대화 재개에 대해 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외교적 유연성 유지될 수 있다는 해석 등이 나오고 있다.

전임했다. 프랑스 파리는 이 조사에서 5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노트르담 대성당 재개발과 유럽 챔피언스리그 경기 등으로 관광객이 대거 몰린 영향이다.

스페인 마드리드가 2위로 뒤를 이었다. 3위는 일본 도쿄로, 아시아 도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특히 도쿄는 나리타 국제공항 제3활주로 건설과 제2 활주로 확장 등을 통해 2039년까지 여객 수용 능력을 두 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중국은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진행 중이던 2018~2019년과 비교하면 이번 군축 백서뿐만 아니라 다른 공식 성명과 정책 문서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5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의 경우 이전 정상 회의에 거의 매번 포함된 ‘한반도 비핵화’가 목표’라는 문구가 생략됐다고 시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6일 보도했다.

2005년 9월에 발표한 이전 백서에 있던 “관련 국가들이 한반도, 남아시아, 동남 아시아, 중동 등에서 비핵지대를 설립한다는 주장을 지지한다”는 문구가 사라진 것이다.

백서에는 “중국은 관련 당사국이 위협과 압박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을 재개해 정치적 해결을 촉진하며 한반도의 장기적 안정과 평화를 실현하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하기를 촉구한다”고 적시했다.

연합뉴스



지난 9월 경기 용인시 에버랜드에 마련된 ‘케이팝 데몬 헌터스’ 테마존에서 관람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한국일보

‘케데헌’ 올해 구글 검색어 순위 2위

노래검색 1위 ‘골든’…송지우, 전세계 배우 4위

K팝을 소재로 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가 구글이 집계한 올해 미국 검색어 순위에서 3위에 올랐다.

5일(현지시간) 구글이 공개한 ‘검색어로 본 2025년’(Year in Search 2025)에 따르면 케데헌은 미국 내 검색어 순위에서 2위에 올랐다.

케데헌은 영화 부문과 출연자 부문 검색어 순위에서는 1위에 올랐다. 케데헌의 시운드트랙인 헨트릭스의 ‘골든’과 ‘테이크다운’, 사자보이스의

‘소다팝’은 노래 부문 검색어 순위에서 3위와 10위, 7위를 각각 차지했다.

‘골든’은 곡조를 흡입거리면 노래를 찾아주는 ‘노래 검색’(Hum to search)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

넷플릭스 드라마인 ‘오징어게임’도 TV쇼 부문 검색어에서 5위에 올랐다. 또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TV쇼 부문 2위를 차지했고, 해당 드라마 시리즈 출연자인 배우 송지우가 배우 부문 검색어에서 4위에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세계 매력적인 여행지 10위 서울…1위는 파리

유로모니터 분석…런던은 18위로 추락

우리나라 서울이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여행지 10위로 선정됐다.

글로벌 데이터 분석 기업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이 관광객 수·관광 인프라 등을 종합 평가해 발표한 ‘세계 100대 도시’

순위에서 서울이 10위를 기록했다고 미국 CNN 방송이 전했다.

서울은 2016년 16위에서 2018년 24위 까지 내려갔지만 2023년 14위로 반등했고, 지난해 12위에 이어 올해는 10위권에

진입했다. 프랑스 파리는 이 조사에서 5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노트르담 대성당 재개발과 유럽 챔피언스리그 경기 등으로 관광객이 대거 몰린 영향이다.

스페인 마드리드가 2위로 뒤를 이었다. 3위는 일본 도쿄로, 아시아 도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특히 도쿄는 나리타 국제공항 제3활주로 건설과 제2 활주로 확장 등을 통해 2039년까지 여객 수용 능력을 두 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연합뉴스

“완벽한 시공, 완전한 안전”

대선소방그룹이 함께하겠습니다.



(자) 대선소방설비산업
(주) 대선이엔지
(자) 대선산업개발

(주) 일등소방
(주) 유덕전기소방공사
(주) 엔에프건설

광주 서구 유덕로6번길 34(대선소방그룹)
E-mail : hd0119@hanmail.net
Fax : 062-371-7118

Tel : 062-381-7119